

역사다큐멘

동아시아를 바라본  
고대 일본 “기쿠치성”

국영 공원을 목표로—

# 기쿠치성



구마모토현

# 고대의 국토 방위를 위한 거점, 기쿠치성



▲ 7세기 후반의 동아시아

이 패전으로 인해 야마토 조정은 신라와 당나라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북부 규슈부터 세토나이해 연안, 긴키 지방에 걸친 각지에 산성을 쌓아 방위력 강화를 꾀하였습니다. 이를 고대 산성이라고 하며, 기쿠치성은 그 중 하나입니다.

기쿠치성이 축조된 연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일본의 역사서인 『속일본기(統日本紀)』에 “오노성, 기이성, 기쿠치성을 수리하게 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두 성과 동일한 665년 무렵에 축조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후 점차 군사 시설로서의 역할은 약해지고 관공서의 성격을 가진 시설로 변화하면서 약 200년은 존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쿠치성은 7세기 후반 현재의 구마모토현 북부(야마가시, 기쿠치시)에 축조된 산성입니다.

그 무렵 일본을 통치하던 야마토 조정은 백제와 우호 관계에 있었으며, 그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멸망하자 야마토 조정은 부흥을 위한 원군을 한반도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663년 백제강 전투에 패하고 망명을 원하던 백제인들을 데리고 귀국합니다.

## ▼ 역사서에서 볼 수 있는 기쿠치성과 관련된 기록

- 663년 백제강 전투에서 나당 연합군에 패한다 『일본서기』 신라와 당나라의 일본 침공이 예상된다
  - 664년 쓰시마, 이키, 쓰쿠시에 사키오리와 봉화를 두고, 쓰쿠시에 큰 제방을 축조한다. 미즈키라 명명한다. 『일본서기』
  - 665년 망명 백제의 고관 오쿠라이후쿠무(穗禮福爾) 일행을 쓰쿠시에 파견하여 오노성과 기이성을 축조한다 『일본서기』
  - 698년 다자이후에 명하여 오노, 기이, 기쿠치의 세 성을 수리하게 한다 『속일본기』
  - 699년 미노, 이나즈키의 두 성을 수리한다 『속일본기』
  - 858년 기쿠치성원의 무기고의 복이 혼자서 올랐다(2월, 6월) 비상용 비축 창고(不動倉) 11동에 화재가 발생한다(6월) 『일본 문도쿠 천황 실록』
  - 879년 기쿠치성원의 무기고의 복이 혼자서 올랐다 『일본 3대 실록』
- (참고)  
875년 까마귀떼가 기쿠치군 창사 지붕의 물을 물어뜯는다 『일본 3대 실록』



기쿠치성은 다자이후의 남쪽 약60km, 아리아케해로 흘러가는 기쿠치강의 하구로부터 약 30km 가까이 거슬러 올라간 내륙부에 있으며, 언뜻 보면 신라와 당나라의 침공 무트 상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대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아리아케해 연안이나 규슈 남부에 상륙한 적을 기다렸다가 공격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무기나 군수 물자, 병사를 최전선에 내보내는 후방 지원 기지로서의 역할과 함께 남쪽으로부터의 침공에 대비한 군사 거점이었다고 추측됩니다.

# 절묘한 지형 위에 고대 백제의 기술로 축조된 견고한 성



기쿠치성은 성의 중심이 되는 구역만 주변 길이가 약 3.5km, 면적 약 55헥타르이며, 그 외측의 성역까지 합하면 약 120헥타르에 이르는 광대한 성입니다. 다른 고대 산성이 험한 산 위에 있는 것과 달리 평야에서 이어지는 대지 위에 있습니다. 주위를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둘러싸여 있으며, 아소의 가이린산에서 기쿠치강 연안까지 볼 수 있는 절묘한 지형이 특징입니다.



성 안에서는 지금까지 3개의 문터가 발굴되었습니다. 성 외주부에서는 능선 위에 보루를 더 쌓아 적의 침입을 막았습니다. 이 보루는 토사를 다져 쌓아 높이는 관축이라는 기법으로 지어졌습니다. 성의 외주는 절벽 지형을 살린 보루선으로 에워싸고, 성 가운데 부분은 능선이나 골짜기를 감싸 안고, 골짜기의 출구에는 수문이라 불리는 돌담으로 만들어진 문을 두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백제의 기술과 공통되는 부분이 많으며, 망명한 백제인이 축성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관축 보루의 출토 상황



## 각 지의 고대 산성

고대 산성이 축조된 시대, 규슈 지방은 정부 기관인 다자이후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규슈에서는 이 다자이후를 중심으로 고대 산성이 계획적으로 축조되었고, 봉화를 사용하여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전투에 대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오노성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의 바로 북쪽에 있으며, 하카타만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인다. 산기슭의 수성과 함께 다자이후 방위를 위한 대거점.



### 기이성

(후쿠오카현과 사가현의 경계)  
다자이후에서 남쪽 8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치쿠고(후쿠오카현 남부)나 히젠(사가현, 나가사키현) 방면으로부터의 방위 거점.



### 가네다성 (나가사키현)

쓰시마 중부의 만에 튀어나오는 산을 에워싸듯이 축조되었으며, 당나라 및 신라에 대한 최전선에 위치해 있다.

# 옛 사람들의 숨결을 전하는 출토품

## 백제계 보살입상

2008년 10월 기쿠치성의 저수지터에서 구리로 만든 백제계 보살입상이 거의 온전한 상태로 출토되었습니다. 크기는 13cm가 채 안되지만 다리 밑에 대좌에 끼워넣기 위한 돌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보서는 작은 감실 등에 넣거나 휴대하면서 숭배한 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상의 특징을 보면 7세기 중반부터 후반의 백제계 보살입상이라고 생각되며, 기쿠치성의 축조에 관여한 높은 신분의 백제인이 가지고 왔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 목간

기쿠치성에서는 고대 산성에서 유일하게 목간이 출토되었습니다. 저수지터에서 출토된 목간에는 “하타히토오시<sup>ハタヒト</sup>오우<sup>オウ</sup>(秦人忍<sup>シノブ</sup>□五斗)”라고 쓰여져 있으며, 하타히토(백제 사람들)의 오시라고 하는 인물이 쌀 5말을 납세한 것을 나타내는 고리표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 목제품

백사들은 자급자족의 생활을 했습니다. 저수지터에서 발굴된 목재 가래는 흙을 일구는 도구로, 출창나무를 가공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 밖에 가래 자루, 도끼 자루와 같은 목제품도 발굴되었습니다.



## 기와

건물의 지붕에 사용된 암기와, 수기와, 막새기와가 출토되었습니다. 처마끝을 장식하는 막새기와는 연꽃을 표현한 백제의 양식을 이어받은 기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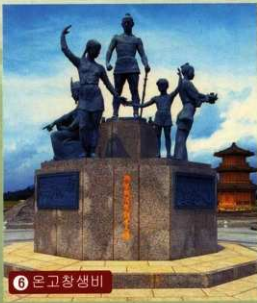
## 탄화된 쌀

화재를 당한 군량이 저장고 주변에서는 타서 재가 된 벼가 대량으로 발굴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이 땅에 살던 요나바루초차(米原長者)가 천발을 받아 집과 그 대지가 전부 타버렸다”는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4 호리키리 문터



1 하이즈카 전망대



6 온고창생비

7 온고창생관



2 남쪽 보루

성 남쪽의 방위 라인입니다.

3 이케노오 문터

성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4 호리키리 문터 (문 주춧돌)

성 남쪽에 위치하여 정문이라 여겨지는 문의 주춧돌입니다.

5 후카사코 문터

성의 동문에 해당합니다.

6 온고창생비

기쿠치성의 상징입니다. "온고"는 조사 연구, "창생"은 정비에 의한 이용 및 활용을 의미합니다.

7 온고창생관

기쿠치성의 해설과 전시를 위한 시설입니다.



13 서문 보루

1 하이즈카 전망대

8 미야노 주춧돌

3 이케노오 문터

9 무기 저장고

2 남쪽 보루

4 호리키리 문터

8 미야노 주춧돌



9 무기 저장고



## 1 하이즈카 전망대

후도바위, 아소 가이린산 등 모든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이즈카”라는 지명에서 예로부터 봉화대가 놓여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8 미야노 주춧돌

당시의 주춧돌을 그대로 전시해 두었습니다.

## 9 무기 저장고

무기를 보관하던 창고입니다.

## 10 병영

병사들이 생활하던 곳입니다.

## 11 군량미 저장고

귀를식으로 지은 식량고입니다.

## 12 팔각형 고루

세 번째 층에 고루를 두어 연락이나 시간을 알렸습니다.

## 13 서문 보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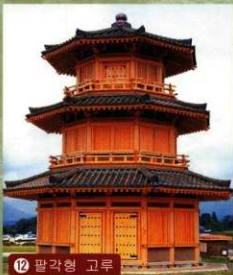
성의 남쪽 방어 라인입니다.

## 14 저수지터

목간이나 건축용재, 벽제계 보살입상 등 귀중한 유물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 P** 주차장
- 🍽️** 레스토랑
- ♿** 화장실
- ♿** 휠체어용 화장실



12 팔각형 고루

## 기쿠치성에서의 체험



소풍



적미(고대쌀) 베기 체험



붉게 물든 벼이삭



복을 보관했던 고루를 보기 위한 성오르기 체험(봄, 가을)



곡옥 만들기 체험(이벤트 시)



출도 유물 안내

## 발굴된 기쿠치성

기쿠치성에서는 1967년 이후 40년 이상에 걸쳐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일본 최초로 다량의 유구(遺構)가 발굴되었습니다.

공원 안에서는 복원 건물이나 유구 표시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발굴 조사 성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두 곳에서 발굴된 팔각형 건물터는 고대 산성에서는 처음으로 발굴되었습니다. 이성산성(경기도 하남시)에서도 이와 아주 비슷한 건물터가 발굴되었습니다.



연못의 중심 가까이에 위치한 나무 보관터에서는 건축용 목재나 토벽에 사용하는 세목 등이 발굴되었습니다.

문터에서는 문의 축을 설치한 구멍이 있는 주춧돌(토대로 상는 돌)이 발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72동의 건물터가 발굴되었습니다. 성이 건재했던 약 200년 동안에 재건을 반복하면서 다양한 시설이 세워졌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 이용 안내



- 아소 구마모토 공항에서 차로 약40분
- 규슈 신칸센 신타마키역에서 차로 약60분 ※2011년 봄 개업 예정
- 우에키 IC에서 차로 약25분
- 기쿠스이 IC에서 차로 약45분
- 구마모토 시내 교통 센터에서 버스로 약60분  
기쿠치 프라자 하차 택시로 약5분
- 아마가 시내에서는 아마가시 합승 택시 (TEL 0968-46-6340)
- 기쿠치 시내에서는 기쿠치 관광 합승 택시 (TEL 0968-26-5022)  
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예약제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 개원 시간 : 공원은 연중 무휴,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 온고창생관 9:30~17:15(입장은 16:45까지)  
휴관일 / 월요일(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과 12월 25일~1월 4일
  - 장자관(레스토랑, 매점) 9:00~18:00  
(레스토랑은 11:00~18:30, 17:30까지 주문 가능)  
정기휴일 / 월요일(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및 12월 25일~1월 4일  
TEL 0968-48-2200
- 주차장 : 70대, 장애인용 3대 대형 버스 주차 가능(무료)
- 자선봉사자들이 안내 해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2주 전까지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 휠체어와 유모차도 대여해 드립니다(대여 가능한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료)

## 문의



구마모토현립 장식고분관 분관 역사 공원 기쿠치성, 온고창생관  
 〒861-0425 구마모토현 아마가시 키쿠치마초 야나바루 443-1  
 TEL. 0968-48-3178 FAX. 0968-48-3697  
<http://www.kofunkan.pref.kumamoto.jp/kikuchijo/>





この電子書籍は、역사공원 기쿠치성 동아시아를 바라본 고대 일본 "키쿠치 성" 국영 공원을 목표로 を底本として作成しました。閲覧を目的としていますので、精確な図版などが必要な場合には底本から引用してください。

底本は、熊本県内の市町村教育委員会と図書館、都道府県の教育委員会と図書館、考古学を教える大学、国立国会図書館などにあります。所蔵状況や利用方法は、直接、各施設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書名：역사공원 기쿠치성

동아시아를 바라본 고대 일본 "키쿠치 성" 국영 공원을 목표로

発行：熊本県教育委員会

〒862-8609 熊本市中央区水前寺 6 丁目 18 番 1 号

電話：096-383-1111

URL：<http://www.pref.kumamoto.jp/>

電子書籍制作日：西暦 2024 年 7 月 20 日